

“김보름 · 박지우 노선영 왕따, 사실무근”

문체부 빙상연맹 특별감사 결과

“노선영 3번 주자 타겠다”

감독 인터뷰는 거짓 판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김보름(25·강원도청)과 박지우(20·한국체대)가 노선영(29·폴링팀)을 배제한 채 속도를 높인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23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특별감사 결과를 밝혔다.

문체부는 3월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빙상연맹 특별감사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 봤다.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레이스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 선수는 지난 2월19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세 선수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보름과 박지우는 약속한 듯 속도를 냈다. 앞서 힘을 뺐던 노선영은 점점 뒤로 밀렸고, 한국은 결국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문체부는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들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뤘고, 노선영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앞선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한빙상경기연맹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의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 중 일부 선수가 뒤처지는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전문가는 문체부의 자문 요청에 “경기 중 반부 간격이 벌어질 경우 각자 최선을 다

해 주행을 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백철기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백 감독이 레이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노선영을 두 번째에 안 넣은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이는 경기 전날 노선영이 제시한 작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선영은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노선영이 마지막 주자로 결정된 것을 인지한 시기는 경기 당일이며, 노선영을 마지막 주자로 배치하는 작전은 전날 다른 선수가 백 감독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레 소식을 접한 노선영은 자신이 없었지만, 선배로서의 책임감으로 역할을 수락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대회 직전까지 노선영이 출전권 미확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빙상연맹 직원의 실수였다. 노선영은 빙상연맹이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출전이 무산될 뻔 했지만 도핑 전력이 있는 러시아 선

수 2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출전 승인을 얻지 못해 가까스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심석희 폭행한 코치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1월16일 심석희에게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다.

심석희는 폭행의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빠져 나왔고, 빙상연맹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심석희가 병원에 갔다”고 허위보고했다.

한편,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장 유명한 스포츠스타 ‘호날두’

해외 스포츠매체 ‘월드 페임’ 1위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월드 페임(World Fame) 100’에서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브라질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도 3, 4위에 올라 축구선수들의 위상을 높였다.

2위는 미프로농구(NBA)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테니스의 ‘전설’ 로저 페더러(스위스)는 5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위에 이름을 걸었다.

ESPN은 해마다 검색 순위, 후원 계약, 소셜미디어 영향력 등을 종합해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 순위를 가린다. 호날두는 검색어 순위 100점으로 메시(134점), 네이마르(179점)에 미치지 못했고 후원 계약에서는 제임스에 뒤졌지만 소셜 미디어 팔로워(1억2170만명)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다.

호날두와 제임스, 메시는 지난해와 2016년 조사에서도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한편 100위 안에 한국 선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선수 중에는 중국의 수영 선수 손양이 17위, 필리핀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가 63위에 꽂혔다. 또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 히로 유즈루 70위, 골프선수 미셸 위(미국)가 97위에 올랐다. /뉴시스

“한국, 러시아월드컵 16강행 확률 29.4%”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23일(한국시간) 러시아월드컵 프리뷰 코너에서 한국이 속한 F조의 전력을 조명했다.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29.4%로 같은 조에 속한 독일(93.8%), 멕시코(46.5%), 스웨덴(42.6%)에 비해 낮다. 한국이 F조 1위를 차지할 확률은 5.9%로 집계됐다. 월드컵 우승 확률은 0.2%다.

야후스포츠는 “한국은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5번째로 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면서 “역동적인 송문이라는 공격수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조 중 하나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공격력을 꼽았다. “한국은 최종예선 원정 5경기에서 1골 밖에 넣지 못했지만 기술이 좋은 송문민을 보유하고 있다.”

수비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최종예선에서 11골을 넣는 동안 10골을 내줬다. 카타르와의 두 경기에서 5실점을 했고, 안방에서 중국에도 2골을 빼앗겼다. 독일과 멕시코에 무너질 수 있다. 스웨덴에도 피지컬에서 압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 지난 2월 19일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